전력거래소-금융결제원 '탄소 거래소' 설립 협력

나주 유치 청신호

한국거래소(KRX)와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를 놓고 경쟁 중인 전력거래소(KPX)는 19일 금융결제원과 '탄소배출권 거래제 공동대응 체제 구축 및 배출권 거래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맺었다.

이에 따라 양측은 탄소배출권 거래제 주관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교류와 행정적 협력을 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면 KPX는 배출권 거래기관 업무를, 금융결제원은 결제기관 업무를 분담키로 했다.

전력거래소는 나주 혁신도시 이전 대상 기관으로 이 기관이 탄소배출권 거래제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면 거래소도 혁신도시에 들어서게 된다.

KPX는 최근 2년간 매년 발전사, 제조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탄소배출권 모의거래제를 국내에서 처음 시행했으며 올 하반기에는 금융결제원과 함께 제3차 탄소 배출권 모의거래제를 운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법에 정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법정 배출 허용한도에 미치지 못하거나 넘을 때 그 차이만큼의 배출권을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연합뉴스

월급쟁이 1천만명 시대

2월 978만명 사상최대

일용직은 IMF 후 최저

'월급쟁이'로 통하는 상용근로자 수가 1천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난 반면 일용직과 자영업자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상용근로자 수는 978만6천명에 달해 전달보다 7만4천명, 작년 같은 달보다는 59만2천명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용근로자 수는 10년 전인 2000년 초반의 620만명대와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에도 연초의 910만명대에서 연말에는 960만명대로 꾸준히 늘어났다.

현재 임금근로자 1천628만2천명 중 상용근로자 비중은 60%에 이른다.

이에 반해 일용직근로자는 2월에 165만7천명으로 전달보다 6만8천명 줄면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월(161만9천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일용직 감소는 이들이 많이 취업하는 건설업의 경기가 최근 안 좋은데다 도소매·음식·숙박 분야 자영업이 부진한 것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비임금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수는 2월에 548만9천명으로 전달보다 1만4천명 늘어났지만, 1월과 마찬가지로 1999년 1월(546만2천명) 이후 가장 적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연합뉴스

사라진 DJ 영정 민주당 시끌시끌

민주계 "DJ정신 계승 못해 생긴 일" 지도부 공격

6·2 지방선거 공천을 놓고 민주당 내 구민주계와 열린우리계 사이의 계파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민주당 영등포 중앙당사에 걸려 있던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이 갑자기 사라져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당사 지도부 회의실에 두 영정 사진을 걸었지만 DJ 사진이 지난 16일 사라졌다.

이에 대해 이강래 원내대표는 18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사진이 분실된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에 신고할지를 판단하겠다"며 "오랫동안 대통령을 모셨던 내 감으로는 틀림없이 열성 지지자가 모셔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계 측에서는 "민주당이 DJ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열린우리계 일색인 당 지도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동교동계의 대변인 격인 장성민 전 의원은 19일 "영정 사진이 사라진 것을 확대해석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당내에 열린우리계와 민주계가 존재한 상황에서 정세균 대표가 민주계를 고사시키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건이어서 의미가 있다. 정 대표의 잘못된 리더십이 문제의 발단이다"고 비판했다.

민주계의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열린계가 민주계를 무시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폄하하기 위해 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상상 하지도 못할 억측과 오해가 난무하고 있다"며 "철저히 진상을 확인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 진상 규명이 안 되면 검경에 수사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치 1번지 '도심 공동화' 해결 내가 적임자"

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후보 토론회

민주당 광주시당은 19일 오후 광주 동구 소태동 동구문화센터 4층 체육관에서 민주당 동구청장 예비후보 3명을 대상으로 합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후보자들의 정책 역량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19일 열린 민주당 광주동구청장 후보 정책토론회는 도심공동화가 쟁점이었다.

동구문화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유태명 동구청장, 조영복 전 동구의회 의장, 임홍채 전 민주당 광주시당사무처장 등은 저마다 대안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1천여 당원·주민 등도 참가해 경청했다.

조영복 전 의장은 "동구는 광주의 '심장'으로, 심장이 계속 뛰어야만 광주가 살 수 있다"면서 "도심 공동화 해결을 위해 금남로 주상복합단지와 외국어고교 유치, 충장로 1~5가에 이르는 아케이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임홍채 전 처장은 "불 꺼져가는 동구의 참담한 현실을 방관할 수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동구청장 경선에 나섰다"며 "광주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이라는 본가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통한 경제발전, 디자인 고등학교 설립해 문화전당과 연계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태명 동구청장은 "도심 공동화는 동구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 7대 도시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공통 과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광주의 자존심과 명예는 민주당 존립의 기반으로 시민 또한 민주당에 할 말을 하고 응당, 요구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좌파 대청소" 발언 김우룡 방문진 이사장 사퇴

MBC 인사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고 시사한 인터뷰로 파문을 일으킨 김우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9일 전격적으로 자진 사퇴했다.

방문진 사무국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우룡 이사장이 일신상의 이유로 이사직과 이사장직을 사퇴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이사장은 "어쨌든 설화를 일으킨 것은 맞다. 자리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방문진 이사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며 "김 이사장이 신동아 발언 사태에 의해 이사장 직위 유지가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판단한다. 김 이사장이 조속히 스스로 진퇴 문제를 판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재 철 MBC 사장도 이날 MBC 방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C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김 이사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김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고 밝혔다. 김 이사장의 사퇴에 따라 방문진은 당분간 이사장 대리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방문진 이사회 내부 규정에 따르면 전 이사장이 따로 지명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가장 많은 이사가 이사장 대리직을 맡게 돼 있다. 김 이사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이사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을 하게 된다.

김 이사장은 지난 17일 발행된 월간지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엄기영 MBC 전사장의 사임 과정이나 김재철 현사장과의 갈등 등을 언급하면서 MBC 인사에 권력기관이 개입한 듯한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기사는 김 이사장이 김재철 사장의 MBC 관계사 인사와 관련해 "'큰 집'(권력기관)도 (김 사장을) 불러다가 '쪼인트' 까고 매도 맞고 해서 (만들어진 인사다). 김재철(사장)은 (내가) 청소부 역할을 해라(하니까). 그러니까 청소부 역할을 한 것이다. (이번 인사로) 좌파 대청소는 70~80% 정도 정리됐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百 광주점 앞 '63층아파트' ?

시 도시계획위 일단 유보

광주시에 63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광주시가 승인해 준 건물층수 상한선인 39층을 초과하는 것으로, 현실화될 경우 도심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진다.

광주시는 19일 "북구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인 광주시 북구 북동 롯데백화점 맞은편 중심상업지역에 28층에서 최고 63층으로 개발하겠다는 정비구역 지정안을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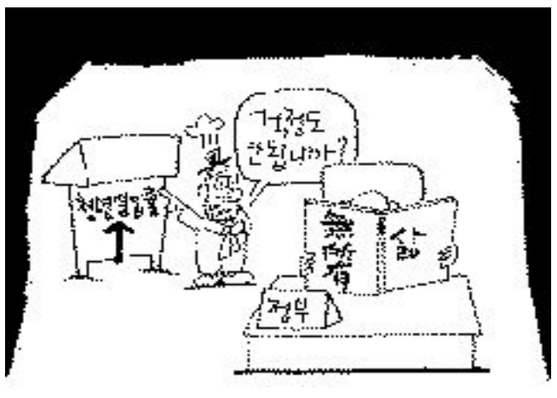
이 안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북동 238번지 일대 13만4천783㎡ 내 주택 656동을 모두 철거하고, 1천746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공동주택 7동과 업무 및 상업시설 2동 등 모두 9개 동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광주 최고 높이의 아파트를 지어 인근 지역 공동주택과 차별화시키는 것은 물론 랜드마크로서의 기능도 감안해 디자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트를 세우려면 도심 초고층 아파트로 인한 교통 및 조망권 문제 등에 선결과제가 많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63층 아파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층수 조정 등이 필요하다며 유보결정을 내렸다. /윤현석기자 chadol@

빛日만평

- 김종두



취직이 뭐 그리 중요하더냐?!

사설

금융권 지역인재 할당제 타분야 확대돼야

은행과 금융공기업들이 지역 인재들에게 문호를 확대한다고 한다. 올해 선발 인원의 20~30%를 지방대학 졸업자로 채우는 할당제를 도입하고 지방 영업점에 근무할 인원은 해당 지역 출신자를 우대하는 채용방식을 잇따라 채택하고 있다. 광주은행은 물론 기업·국민은행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지방대학 출신들을 일정 비율 채용할 계획이다.

지역 인재 할당제는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지방대 출신 인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역을 잘아는 지방출신 직원들의 장점을 살릴 경우 기업에도 플러스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전남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오래전부터 전국 최고 수준이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만한 변변한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대학들이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저조한 취업률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방대의 위기는 단순한 해당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지역 출신 고등학생들이 대거 수도권 대학으로 몰리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인재와 함께 돈까지 유출되니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역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있다.

학생수 감소로 오는 2012년부터 상당수 지방대학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종시에 수도권 대학을 유치하고 정원을 늘려주겠다는 정부 방침도 지방대학들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고사직전에 있는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할당제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나 지방공무원 선발시 지방대생을 일정 비율 선발토록 의무화해야 한다. 지방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광주가 '나홀로 차량' 전국 최고라니

광주에서 운행중인 승용차 10대 가운데 8대 이상은 운전자만 탑승한 '나 홀로 승용차' 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한 달간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 248개 시·군·구의 승용차 운행 실태를 한 조사 결과, 광주의 1일 평균 '나 홀로 승용차' 비율이 82.7%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77.7%보다 5%p나 상회하는 것이다. 차량에 탑승한 인원을 뜻하는 재차(在車) 인원도 1.2명으로 서울과 함께 가장 적은 수치라고 한다.

나 홀로 차량의 비율이 높고 재차 인원이 적다는 것은 경제·사회적으로 그만큼 부담요인이 된다. 필요 이상의 차량이 운행하게 되면 교통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높은 도로 점용률로 인해 교통 혼잡을 불러오고, 출·퇴근 시간대에 광주시내 도심이 교통체증을 빚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차난 심화나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 등 사회적 문제도 야기한다.

물론 나 홀로 차량이 많은 것은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시간과 비용 등을 따졌을 때 불가피하게 나 홀로 운행을 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운전자의 대부분이 광주시의 교통체계나 도로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이의 개선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먼저, 주요 간선도로의 열악한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인도가 비좁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 보니 자전거 타기가 겁이 날 정도다. 간선 급행버스 확대와 지하철을 연계하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운전자 역시 승용차를 공동 이용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률 전국 최고에 '나 홀로 차량' 전국 최고라는 불명예는 분명 낯 부끄러운 일이다.

産銀 "금호 계열사 임원 보수 대폭 삭감"

금호아시아나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산업 등 구조조정 대상 4개 금호아시아나 계열사들의 임원 보수를 깎을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실사를 바탕으로 경영정상화 계획이 확정되면 각 계열사들도 자구계획을 수립해 실행할 것"이라며 "임원의 보수도 주주총회에서 책정된 보수한도 총액과 무관하게 정상화계획과 비용절감 목표 등을 감안해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금호아시아나계열사들이 산은과 협의 없이 임원보수 한도 안건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이는 회사 측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반영하지 않고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수한도 규모를 책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장원섭· 진보신당 윤난실 등 광주시장예비후보들은 19일 "금호타이이어가 임원들의 보수를 1인당 4천만원씩 인상하는 계획을 공시했다"며 "노동자에게는 정리해고를, 임원에게는 보수 인상을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파렴치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사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보수 한도액이 18억원으로 유지된 상황에서 사외 이사를 포함한 이사 총원이 10명에서 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산술적으로 1인당 보수 금액이 상향 된 것 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실지급액은 30% 이상 삭감됐다"며"내부 고통분담이 없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연합뉴스

우근민 결국 탈당…민주 지도부 책임론

지난 3일 민주당에 복당한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복당 16일만인 19일 민주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성희롱 논란'으로 당 공천심사위가 경선 참여자격을 박탈한 우 전 지사는 이날 민주당 제주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도민의 선택을 확신하기에 무소속 신분으로 도전, 승리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안팎에서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방선거 승리에 급급해 '묻지마 영입'을 주도했다가 성희롱 전력으로 파문이 커지자 '꼬리 자르기'로 봉합에 나서는 등 안이한 대응으로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인 것이다. /연합뉴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